

강호항공고등학교 행복학교 박람회 참가

-2014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교 설명회도 성공적으로 마쳐-



교 육부가 주관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이 후원하는 행복학교박람회에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강인숙)가 전라북도 특성화고등학교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다. 지난 9월 26일-28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 1전시관에서 열린 행복학교 박람회는 꿈, 행복, 끼, 자유학교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전국의 우수학교를 선정한 후, 학교활동을 중심으로 실적물 전시와 체험 활동을 공개하였는데 강호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010년 1회를 필두로 2011년 2회에 이어 2013년에 3번째로 선정되어 “꿈(을 키우는)”의 분야에 참가하여 전북 교육의 명예를 드높였다.

강 호항공고등학교는 모형비행기 조립 체험과 RC헬리콥터 조종, 항공기 시뮬레이션 조종, 승무원 체험 등을 주제로 참가하여 견학을 온 전국 각지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로부터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는데 특히 모형비행기 조립 체험과 시뮬레이션 조종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강인숙 교장은 “학교 박람회는 아주 의미깊은 교육행사인데, 일선 학교의 은닉되어 있는 우수한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이러한 학교 박람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굴되고 교육의 주체끼리 상호 교류를 하여 그 장점들을 공유한다면, 학교현장에서 이를 실험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급속도로 선진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박람회 참가의 변을 일갈하였다. 박람회 현장 체험과 실습을 지도한 강호항공고 김보곤·홍만석 교사는 “아직은 덜 선진화되고 약간은 생소한 우리나라 항공 교육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며, 특히 “고등학교의 항공교육이 공군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 정비 기술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 T-50 초음속 고등 훈련기 및 경전투기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항공회사) 같은 비행기 제조 회사와 어떻게 연계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항공정비 인력의 양성이 국방에 있어서 항공 방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며 금번 참가의 의미와 실적을 집약해서 말하였다.



한 편 9월 28일 강호항공고등학교 강호기념관에서 2014학년도 학교 설명회를 시설 개방과 함께 겸하여 개최하였는데 500명이 넘는 전국 각지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석해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및 교육 내용을 들은 후 최첨단 우주 항공 실습실을 관람하면서 놀라움과 만족감을 표시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학부모는 “강호항공고의 이름은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와 보니 소문 이상”이라며 읍단위에 이런 엄청난 시설을 갖추어 교육할 줄은 짐작하지 못 했다면 자녀를 꼭 보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런 특성화된 교육이 전국적으로 좀 더 활성화되었 으면 한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강호항공고는 2014학년도에 226명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고창지역에 취업인재전형 24명을 배정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기자단_(강호항공고) 설예은 기자-

[출처]"강호항공고등학교 행복학교 박람회 참가"-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 전라북도교육청 학생기자단, 행복한 학교 박람회, 교육청, |작성자 : 전라북도교육청